

이슈 브리핑

🔴 이슈 요약

- ◆ Mercedes-Benz, '27년부터 자사 PHEV, EREV 등에 BMW의 2.0L 엔진을 탑재하기 위해 파트너십 논의 중
- ◆ Porsche, Cellforce 고성능 배터리 양산 계획 철회 및 구조조정 단행, V4Smart 중심 고성능 셀 개발에 집중
- ◆ Hertz, 대형 중고차 업체 최초로 Amazon의 중고차 판매 플랫폼에 입점하며 온라인 중고차 시장의 변화를 예고
- ◆ 美 자율주행 스타트업 Nuro, 2.03억 달러 투자 추가 유치로 자사 자율주행 플랫폼 상용화에 박차
- ◆ 中 GWM, 브라질 상파울루 공장을 신규 가동하며 러시아·태국에 이어 세 번째 글로벌 생산 거점 확보
- ◆ 中, EV 충전 인프라 확산 및 정부 보조금 확대에 힘입어 '25년 상반기 대형 EV 트럭 판매 급증

◆ Mercedes-Benz, BMW 엔진 탑재를 위해 파트너십 논의 중

- Mercedes는 자사 소형 세단에 활용하던 1.5L 엔진*이 전동화 차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고, BMW의 2.0L 4기통 엔진 탑재를 고려 중
- * Geely·Renault 합작으로 중국에 설립된 'Horse Powertrain' 제품의 변형으로, 기본적으로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적용에 초점을 두고 설계됨
- 해당 BMW 엔진은 PHEV, EREV 등에도 적용 가능한 이점이 있어, Mercedes는 '27년부터 CLA 등에 탑재를 시작할 것으로 관측됨
- 확정될 경우 대표적인 라이벌 기업 간의 협업 사례로 남을 전망이며, Mercedes의 BEV 판매 둔화·Euro 7 규제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음

electrek('25.8.21) <http://bit.ly/462ONWG> Car and Driver('25.8.23) <http://bit.ly/4n4BqyV>

◆ Porsche, 고성능 배터리 양산 포기 후 대규모 인력 조정 단행

- Porsche는 고성능 EV용 배터리 자체 개발 및 양산을 목표로 그간 Cellforce, V4Smart 두 개의 배터리 자회사를 운영해 왔음
- 그러나 EV 성장세 둔화, 유럽산 설비의 고비용 문제, 기술적 우위 확보의 한계 등에 따라 배터리 자체 양산계획을 철회하고 Cellforce의 R&D 부서를 제외한 모든 인원에 대해 구조조정을 예고
- Porsche는 Cellforce가 쌓은 노하우를 VW 그룹의 PowerCo에 인수하고, 향후 V4Smart를 중심으로 배터리 셀 연구를 지속할 예정

Reuters('25.8.25) <http://bit.ly/4pbdUiK> Porsche Newsroom('25.8.25) <http://bit.ly/4mCVS7m>

◆ Hertz, Amazon과의 제휴를 통해 온라인 중고차 판매 강화

- Hertz Car Sales는 美 대형 중고차 업체 최초로 Amazon Autos에 입점. 고객은 차량을 Amazon에서 구매 후 Hertz 지점에서 인수하게 됨
- Hertz 중고차의 체계적인 차량 관리 시스템과 Amazon이라는 대형 플랫폼의 결합은 중고차 시장의 디지털 판매 전환에 촉매가 될 전망

Reuters('25.8.20) <http://bit.ly/3JyCGZP> Hertz Newsroom('25.8.20) <http://bit.ly/425cBHY>

◆ 美 자율주행 스타트업 Nuro, 2.03억 달러 규모 펀딩 성공

- Nuro는 최근 Series E 라운드에서 2.03억 달러 투자금을 조달하며 60억 달러 기업가치를 인정받는 동시에 신규 투자자로 Nvidia를 유치
- Nuro의 초기 사업모델은 '라스트마일' 배송 로봇 개발 · 공급이었으나 수익성의 한계에 부딪힘. 이에 그간 다양한 범위의 차량에 적용 가능한 Level 4 자율주행 플랫폼 'Nuro Driver'를 개발하고 기술 공급에 중점
- Nuro는 7월 Uber, Lucid의 로보택시에 Nuro Driver 탑재를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으며, 투자금은 해당 프로젝트 추진에 쓰일 예정

Reuter('25.8.21) <http://bit.ly/47Pii0o>

Bloomberg('25.7.17) <http://bit.ly/47dbqK7>

◆ 中 GWM, 브라질 신규공장 가동 개시로 남미 시장 공략 본격화

- Great Wall Motor(长城汽车)는 최근 브라질 상파울루 이세마폴리스에서 연산 5만 대 능력을 보유한 신규공장 가동을 공식 발표
- 해당 공장은 최초 Daimler(現 Mercedes-Benz)의 엔트리급 모델 생산을 담당했으나 브라질 경기침체로 인해 GWM이 '21년 인수
- GWM은 해당 공장을 글로벌 세 번째 생산 거점으로 삼으며 남미 자동차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점차 확대해나갈 것으로 평가됨

Gasgoo('25.8.18) <http://bit.ly/4fZ8Sl1>

GWM('25.8.16) <http://bit.ly/3UParZ7>

◆ 中, '25년 상반기 대형 EV 트럭 내수 판매 급증

- 대형 트럭의 전동화가 더딜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중국 내수의 대형 EV 트럭 판매는 '25년 상반기에만 8.71만 대로 '24년 연간 판매량을 초과
- 배터리 가격 하락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확보,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·초급속 충전기 등 충전 인프라 확산, 노후 트럭 → EV 트럭 교체 시 추가 보조금 지급* 등이 판매량 증가의 배경으로 지목됨

* 중국은 이구환신(以舊換新) 정책의 일환으로 노후 트럭 교체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, NEV 트럭으로 교체 시 가솔린 대비 3만 위안(약 582만원)을 추가로 지급함

Nikkei Asia('25.8.26) <http://bit.ly/4fTurmW> Reuter('25.7.11) <http://bit.ly/4fUXxT0>